다문화가정의 '행복전도사' 하나금융나눔재단

모범 결혼이주여성 선정해 대상 시상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왼쪽 첫번째)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다섯번째), 수상자 가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나눔재단

하나금융나눔재단은 지난 10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제10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나다문화가정대상'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 통합 구현에 기여하고자 국내 최초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전국 규모의 전통 있는 시상식으로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라울 헤르난데스 주한 필리핀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 모범적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단체를 선발해 시상하고 격려했다.

영예의 대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은 몽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인 나랑토야 씨가 수상했다. 나랑토야 씨는 한국 유학 중 결혼한 14년차 주부로,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화목한 가정을 이룬 모범적인 결혼이주여성이다.

특히, 8개 국어로 발행되는 다문화 소식지 '안산하모니'의 몽골어 편집장, 외국인주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왕성하게 했고, 현재는 몽골어 통번역지원사로 활동하며 두 자녀와 결혼이주여성에게 '롤 모델'이 되기 위해 진취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어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9일 포시즌스호텔에서 대명그룹과 금융교육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명레저산업 손창완 부장(왼쪽부터), 윤혁락 세일즈마케팅본부장, 정종훈 MICE영업팀장, 최주영 대표이사, 최진식 비발디파크 운영지원실장, 박흥석 대명그룹 부회장, 미래에셋대우 박경준 강남1지역본부장,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 최춘구 준법감시인, 마득락 WM사업담당 사장, 양승연 금융소비자보호팀장, 허선호 경영지원부문대표, 금융소비자보호팀 임창빈 선임매니저.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

대명그룹과 금융교육 MOU 체결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9일 포시즌스호텔에서 대명그룹과 금융교육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대명그룹 박흥석 부회장,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해 금융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1사 1교 금융교육과 각종 맞춤형 금융교육 특강(초, 중, 고, 군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인 1사 1교 금융교육 확대를 위해 전국 초, 중, 고등학생은 물론 대명그룹과 결연되어 있는 2개의 군부대를 대상으로도 금융교육을 실시해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또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명그룹과 미래에셋대우는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금융교육 확대, 문화행사, 각종 워크샵 등 상호 적극 협력을 통해 정부정책과 감독당국의 개혁과제에 발맞춰 금융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합의했다.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미래에셋그룹은 따뜻한 자본주의의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사 창립이래 많은 금융교육을 실시해왔다"며 "양사가 협약을 맺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1사 1교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명그룹과 상호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스마트 팩토리 ICT 플랫폼' 구축

변상모 신한인도네시아은행장(왼쪽에서 여덟번째)과 이상협 풍국산업 부사장(왼쪽에서 아홉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풍국산업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과 은행 계좌 통합형 NFC 카드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ICT 플렛폼(Platform)'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인도네시아 최초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을 탑재한 ATM Debit 카드를 도입해 ㈜풍국산업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핵심단계인 ICT Platform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NFC가 탑재된 ATM Debit 카드가 공장 모든 작업자들에게 지급되며 개인 급여계좌와 연동돼 인도네시아 모든 ATM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하고 가맹점 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생산라인에서는 IOT로 연결된 각 디바이스에 개인 카드를 태그함으로써 제조기계에 연결된 개인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생산 효율성 향상, 적정 작업량 배분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오늘의 운세 7월 12일 (음 5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하는 것도 좋다. 60년생 내가 편안해야 일도 잘 풀리는 법이다. 72년생 가족의 협조를 얻어 꼬인 일을 풀어나가자. 84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자.

소 49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한 법이다. 61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73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쩌겠나. 85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한 하루.

호랑이 50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이다. 62년생 아직은 떼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74년생 그늘이 그리운 날이다. 86년생 밖은 꽃이 피었으나 내 마음은 찬바람이 불고 있구나.

토끼 51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63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날. 75년생 작은 먼지로 눈물이 날 수 있다. 87년생 기다리던 문서는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용 52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64년생 윗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날. 76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88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뱀 53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은 하지 마라. 65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힘껏 노력. 77년생 오랜 적선이 드디어 내게 돌아온다. 89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마음이 즐겁다.

말 54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다. 66년생 돼지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성사된다. 78년생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를 정하자. 90년생 정확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한다.

양 55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 67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두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79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하자. 91년생 보라색 옷이 사랑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원숭이 56년생 이웃과의 거래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68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결단이 필요. 80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92년생 능력도 기회가 주어져야 발휘할 수 있다.

닭 57년생 충고는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69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방법을 찾게 된다. 81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이 되어 돌아온다. 93년생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개 58년생 세상만사 새옹지마이니 일희일비는 금물. 70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오는 법. 82년생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94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돼지 59년생 자손에게 좋은 소식이 온다. 71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이다. 83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지 마라. 95년생 가까운 친구가 나를 모함하니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9	8	
4								5
			6		1			
		8				5		
	9	4				2	7	
			9	7	2			
			2		7			
	2	7	5	9	6	4	3	
	6						1	

								8
	1	8		6	7	2		
	5		9					
		5		4			6	
	6		3			7	4	9
	7				9			3
	9			2				
			4	7				1
4				9	5		2	

스도쿠 정답

6	4	9	2	3	1	5	7	8
3	1	8	5	6	7	2	9	4
7	5	2	9	8	4	3	1	6
9	3	5	7	4	8	1	6	2
8	6	1	3	5	2	7	4	9
2	7	4	6	1	9	8	5	3
1	9	7	8	2	6	4	3	5
5	2	6	4	7	3	9	8	1
4	8	3	1	9	5	6	2	7

5	6	9	3	4	8	7	1	2
1	2	7	5	9	6	4	3	8
8	4	3	2	1	7	6	5	9
3	5	1	9	7	2	8	6	4
6	9	4	8	3	5	2	7	1
2	7	8	1	6	4	5	9	3
9	8	2	6	5	1	3	4	7
4	3	6	7	8	9	1	2	5
7	1	5	4	2	3	9	8	6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효신 살로 아이를 망칠 수 있다

사십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들어서는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다. 인간사 수심이라면 돈 건강 인간사 문제일 텐데 중년 여인의 눈 아래 수심이 찼으니 자식 문제임이 틀림없다. 내어 놓는 사주를 보니 임자생 음력 10월생에 일주에 인수를 깔고 앉았다. 음력 10월은 월주가 신해(辛亥)월이니 일주와의 관계상 겁재격이 되면서 지지와는 효신을 이루고 있었다. 분명 여식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이다. 이 점을 우선 얘기하였더니 표정이 다소 밝아지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친구도 없다고 한다. 이미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지만 모든 일에 엄마가 대신하거나 감정 표현의 모든 것도 엄마가 받아주어야 한다. 점점 불가항력적이 되어가며 홀로 서야 할 고학년이 되어감에도 외톨이처럼 친구도 사귀지 못했다. 여인의 사주와 아이의 사주를 살펴보니 우선 엄마의 사주에 효신살(梟神殺)이 있음은 자녀 특히 딸과의 관계가 몹시 피곤함을 나타낸다. 모녀간의 효신은 딸의 몸에 장애가 있지 않으면 서로를 몹시 힘들게 하는 운으로 작용한다. 잘해 준다고 하는 게 오히려 역작용이 된다. 이런 경우는 부모 성에 차지 않고 좀 못하는 게 있어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립심을 키워주어야 했다. 그러나 여인은 천성적으로 넘치는 수(水)기운으로 겁이 많다. 자기 마음이 우선 안심이 되어야 한다. 학력 또한 유수한 여인은 주변에서는 아이를 너무 과보호하는 것 같다고 했지만 육아방식에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다. 물론 딸을 위한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허나 딸이 친구가 없음을 걱정하지만 친구를 사귈 기회조차 주지 않았음을 여인은 간과하고 있다. 그저 아이가 내 눈 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했던 것이다. 딸 아이 하나만을 둔 부모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사주 상으로 보이는 엄마의 결벽증과 의심 많은 성격은 아이의 사회성이 발달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하나뿐인 딸로서 지극한 보살핌을 받은 아이는 항상 엄마가 제일 편했다. 엄마 없는 순간은 불편함 그 자체였다. 서로 동등한 요구와 대접을 주고받아야 하는 친구들은 엄마를 대신할 수 없었다. 아이는 친구들의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하게 되었다. 딸아이 역시 내향적 성격이 강한 신축(辛丑)일주였다. 축축한 땅에 묻혀 있는 보석과 같은 성격인데 엄마의 고집과 소심함으로 꽁꽁 묶어 둔 것이다. 성격변화를 위해 우선은 피아노를 가르치게 하여 메마른 자긍심에 소리의 변화부터 실어 주기로 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